

◇관상동맥 우회로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정맥 적출술

이교준, 김해균, 홍윤주, 김부연, 이두연

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관상동맥 우회로술의 이식편으로 선호되는 복재정맥은 길이가 충분하고, 적출이 용이하지만, 기존의 종절개 방식으로는 1m 정도의 절개창이 남고, 그 합병증이 20~50%로 보고되고 있다.

방법 :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협심증클리닉에서는 1998년 2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모두 22례의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하였으며, 이 중 17례[77.3%]에서 서혜부 및 무릎 부위에 각각 2~3cm 정도의 작은 절개만을 시행하고 내시경을 이용, 복재정맥을 적출하여 사용하였기에 그 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.

결과 : 전체 22례중에서 응급수술 3례, 1개 혈관 병변 1례 및 대동맥류의 동시 수술로 양측 서혜부 개방창이 요구되었던 1례 등의 5례에서는 복재정맥을 적출하지 않거나 기존의 방법으로 적출하였다. 대상 환자 17례는 남자가 13명, 여자가 4명이었으며, 나이는 평균 61.9 ± 7.3 세였다. 병력으로는 고혈압이 12례[71%], 당뇨병이 4례[24%] 있었으며, 혈관의 병변은 1개 혈관 병변이 1례, 2개 혈관 병변이 4례[좌주관상동맥 1례] 및 3개 혈관 병변이 11례[좌주관상동맥 2례]였고, 좌주관상동맥에만 국한되었던 예가 1례 있었다. 좌심실 박출계수는 평균 $52.1 \pm 15.1\%$ 였다. 수술 방법은 Off-Pump CABG 1례를 제외한 모든 환자들이 일반적인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받았으며, 전체 환자에서 좌내유동맥의 사용이 가능하였고, 환자당 평균 이식편수는 4.4 ± 1.0 개였다.

결론 :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TIA 1례 및 수술후 심망 1례가 있었으나,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으며, 호흡부전, 패혈증 및 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. 또한 복재정맥을 적출하였던 부위의 출혈, 혈종 및 창상 감염도 없었으며, 통증을 호소한 환자도 없었다. 이상의 결과로 내시경을 이용한 정맥 적출술은 기존의 방식을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김해균(연세대학교) 발표자:이교준(연세대학교)